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한 고찰

강 영 준*

< 목 차 >

- | | |
|--------------------------|-------------------------|
| I. 들어가며 | V.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 |
| II. 지역통계의 필요성 | 센터의 구축 방안 |
| III. 지역통계 포털사이트 현황 | VI. 나가며 |
| IV.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 | 〈참고문헌〉 |
| 센터의 필요성 | |

< 국문 초록 >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독립된 홈페이지가 없는 시도는 제주가 유일하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내의 통계정보 탭을 통해 지역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는 지역통계 전담인력도 3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통계 포털사이트인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지역통계 전담기관인 ‘제주통계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해 고찰하였다. 지역통계자료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는 가치가 높다.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가 구축되면, 지역통계

* 제주연구원 위촉연구위원

생산·관리자와 지역통계 이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지속적 지역통계 생산과 활발한 지역통계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 구축전략을 제안하였다. 1단계는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통계에 대한 정보접근성 향상, 2단계는 지역통계에 대한 이용편의성 향상, 3단계는 지역통계의 빅데이터화 전략이다.

핵심어 : 제주통계 포털사이트, 제주통계 데이터센터, 지역통계자료

I. 들어가며

제주 지역정보 접근성 향상을 통해, 산업, 행정, 연구, 교육 등의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년간 유지해 온 돼지고기 반입 금지를 조건부로 해제하였다. 이 결정과 관련하여, 제주산 돼지 사육두수, 제주산 돼지고기 거래가격, 제주산 돼지고기 거래량은 정책결정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양돈이 제주 농수축업에서 차지하는 조 수입 규모가 감귤 다음으로 큰 것을 감안하면(한국은행, 2016), 이 정보들의 가치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정보들은 양돈농가, 제주도민, 관광객에게 있어서도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정보들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은 편이다. 돼지 사육두수 정보는 통계청의 가축동향(통계청, 2017.11)에서 제공하고, 제주산 돼지고기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의 정보는 제주연구원의 제주통계(제주연구원, 2017.11)에서 제공한다. 따라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은 신문이나 보도자료에서 제공하는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게 되고,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 및 소비활동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지역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통계포털 사이트를 통해 통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통계포털 사이트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독립된 URL 주소를 갖는 지역통계 전문 홈페이지이다. 지역통계포털 사이트에서 체계적으로 구분된 항목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손쉽게 자신들이 원하는 통계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

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14개 대분류, 97개 중분류, 1153개 소분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¹⁾ 2017년 12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지역통계포털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12개 시도이다. 나머지 5개의 지자체 중 4개의 시도는 지역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통계를 제공하는 독립된 홈페이지가 없는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통계 포털사이트를 갖추고 있지 않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행정/통계정보-통계정보에서 지역통계자료 제공하고 있다.²⁾ 제주도민이 통계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총 3개의 탭을 거쳐야 비로소 정보 검색이 가능한 화면에 도달할 수 있다. 이 화면에는 11개의 탭이 존재하는데, 각 탭에는 해당 주제의 자료를 게시판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게시판 형태의 자료보관 방식은 문서 보관에 적합한 형태로, 타 지자체들의 경우, 국가통계포털(KOSIS)식의 폴더형 자료 보관과 화면 내 조건부 자료 검색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정보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통계 포털사이트 부재의 숨은 문제점은 지역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주도청은 주로 인구와 지역 기본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지역 경제와 관련된 자료는 제주연구원에서, 문화 관광에 대한 정보는 제주관광공사에서, 교통과 관련된 정보는 제주교통정보 센터에서, 농산물 가격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산업체 정보는 제주테크노파크 산업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한다. 여러 곳에 정보가 산재되어 있으면, 정보 검색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정보가 과소 검색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자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하면, 지역경제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각의 정보 생산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일화된 주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통계 포털사이트와 관리주체인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제주지역통계 포털사이트에서는 도민의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 증대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계·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데이터센터에서

1)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jsp3/index.jsp>, 검색시간 : 2017.12.5. 20:47

2) 제주특별자치도-정보공개-행정/통계정보-통계정보,
<https://www.jeju.go.kr/open/governmen/stats/population.htm>, 검색시간 : 2017.11.23. 20:00

는 기존 자료를 취합, 재분류하는 1단계, 도민 맞춤형 자료를 수집하는 2단계, 데이터센터를 빅데이터화 하는 3단계의 단계적 접근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제주가, 지역통계 정보제공과 활용에서, 타 지자체와의 눈높이를 맞추고, 나아가 제주만의 정보 활용 모형을 제시하여 제주의 경제, 문화,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공헌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나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지역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한다. 3절에서는 지역통계 포털사이트 현황을 살펴보고, 4절에서는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고찰한다. 5절에서는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데이터센터의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6절에서는 연구의 결론을 맺는다.

Ⅱ. 지역통계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 지역통계란 전국단위 통계 중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통계를 포함한 지역단위 통계로 정의한다. 전국단위 통계란 전국을 통계작성 대상 지역으로 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하며, 전국을 나타내는 통계와 함께 경우에 따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의 통계를 함께 작성하는 사례도 있다. 지역단위 통계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하는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며, 간혹 중앙정부에서도 특정 목적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표본 조사 여부, 통계작성 방법, 자료 수집 방법 등에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모든 통계가 해당된다(통계교육원, 2011).

지역통계 자료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 중 하나가 지역통계 정비 및 확충이었다. 그 이유는 지역통계 정비 및 확충 없이는 지역경제 정책 내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얻기가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김영표, 2007).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등장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에 의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지

역통계를 축적하고 있어야 한다(윤태범, 1998). 또 지역통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 환경, 정치 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눈에 쉽게 알아 볼 수 있으며, 분야 간 발전의 정도 차이를 비교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정책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정남지, 2015).

국가 차원에서 지역통계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의 첫 번째 전략과제는 ‘국가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으로, 그 세부과제는 데이터의 효과적인 개방·공유 및 활용기반 조성, 데이터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 데이터 산업의 발전기반 확충이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공데이터를 글로벌 경제의 신자본으로 인식하고, 공공정보 개방·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2013, 미래창조과학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빅데이터 센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주관광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된 빅데이터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7.06.02.)하여 제주 빅데이터 센터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빅데이터 센터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아니다. 빅데이터는 거래자료, 추적장치자료, 센서자료, 온라인 활동자료 및 의견자료로부터 수집 가능하다는 제약이 존재한다(이지영, 2015). 빅데이터 유형별 특징 및 사례인 <표 II-1>을 살펴보면, 빅데이터는 자료의 수집단계부터 디지털화 된 자료를 수집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1> 빅데이터 유형

원천자료	빅데이터 원자료	활용사례
거래자료 (Transaction data)	신용/직불카드 및 금융거래 자료, 유통업체 자료	(뉴질랜드 통계청) 거래통계 (한국석유공사) 물가통계
추적장치자료 (Tracking device data)	통신사의 모바일 위치자료 앱기반/상업용차량 GPS자료	(네덜란드/유럽/뉴질랜드 통계청) 유동인구통계 (부산광역시) 서비스인구통계

센서자료 (Sensor data)	위성사진, 도로/기상/전력센서	(네덜란드 통계청) 교통통계 (호주 통계청) 통업통계 (아일랜드 통계청) 전력통계 (기상청) 기상정보 융합서비스
온라인 활동자료 (Online behavior data)	온라인 가격정보, 온라인 검색, 등록정보	(네덜란드/유럽 통계청) 물가통계 (이탈리아 통계청) 기업 ICT 관련 통계
의견자료 (Opinion data)	트위터 등 공개 SNS 자료	(네덜란드 통계청) 심리상태 (UN Global Pulse) 고용통계
행정자료 (Administrative data)	공공·행정자료(행정, 납세, 복지, 보건, 주택 등)	(호주/덴마크 통계청) 인구통계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자료 :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이지영, 2015)

다양한 범위의 자료는 지역통계자료를 통해 제공 가능하다. 제주도의 근간을 이루는 농수축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산업자료, 도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소득, 노동, 환경, 교육, 보건, 문화, 여가, 안전자료, 제주가 보존해야 하는 환경자원, 지역역사, 지역특색자료 등은 대부분 디지털화되지 않은 자료들이다. <표 II-2>의 서울통계가 제공하는 지역통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통계가 <표 II-1>에서 제시된 빅데이터 원자료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 서울통계 현황

구분	세부항목	자료개수 (건)
인구	주민등록인구, 외국인인구, 인구구조, 인구이동, 출생사망, 인구추이	119
여성/가족 (가구)	가구추이, 가족형성, 가족일반, 여성일반, 여성권익, 아동, 청소년, 가족인식, 결혼인식, 사회인식	123
산업	사업체, 중소기업, 유통업, 금융산업, 노사관계, 산업정책, 농업, 축산·임업, 에너지, 사회인식·실태	142
경제	고용동향, 물가동향, 경기동향, 소득 및 지출, 인적자원, 무역수지, 사회인식·실태	67
보건	의료현황, 보건산업, 질병, 건강증진, 청소년건강, 사회인식·실태	103
복지	사회복지, 보훈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보험, 연금, 사회인식·실태	92
교육	교육총괄, 교육재정,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 사회인식·실태	90

문화관광	관광, 문화기반, 생활체육, 사회인식·실태	73
교통	교통기반, 교통수단, 교통운영, 교통현황, 사회인식·실태	66
환경	자연보전, 수질보전, 대기보전, 기후,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사회인식·실태	86
주택건설	주택현황, 주택매매, 건축, 도시, 도로, 토지 및 하천, 사회인식·실태	91
안전	경찰, 구조구급, 범죄, 소방, 안전사고, 재난, 특별사법경찰, 사회인식·실태	104
정보통신	우정사업, 정보통신기반, 인터넷, 사회인식·실태	38
행정일반	공무원인사, 공무원현황, 민원행정, 재정, 주요기관, 시민참여, 청렴/부패, 사회인식·실태	83
합계	-	1,277

자료 : 서울통계(<http://stat.seoul.go.kr/jsp3/index.jsp>, 검색시간 : 2017.12.5. 20:47)

따라서 제주에서는, 빅데이터 센터에 앞서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인 지역통계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2012)은 제주 지역통계 컨설팅에서 관광, 해양산업, 청정·친환경 농수축산물 관련 지역정책에 필요한 분야별 지역특화통계가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강창민과 정원희(2014)는 제주특별자치도 3.0 대응방안에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는 정보의 적극적 공개,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민관 협치의 강화하는 것이고,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자체적으로 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사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용적 측면에서도 큰 비용을 들여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에 앞서, 적은 비용으로 지역통계를 수집 및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Ⅲ. 지역통계 포털사이트 현황

본 연구에서 지역통계 포털사이트란 지자체에 의해, 지역통계 전체를 한 곳에서 검색하도록 만든 독립된 홈페이지를 뜻한다. 포털사이트(portal site) 또는 웹 포털(web portal)은 월드 와이드 웹에서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기본적으로 거쳐 가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를 말한다. 포털 사이트들은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또는 그에 대한 메

타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³⁾ 따라서 지역통계 포털사이트는 지역주민들이 지역통계를 검색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독립된 홈페이지 형태여야 하고, 지역통계 자료를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통계자료 생산기관을 연결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가 지역통계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17개의 시도 모두 지역통계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시도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의 12개 시도이다. 이 중 서울은 ‘서울통계’라는 지역통계 포털사이트를 통해 14개의 구분에 대한 1,277개의 세부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가장 폭넓은 범위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통계’와 ‘경기데이터’드림으로 지역통계 포털사이트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전자는 인포그래픽 등 정보검색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자는 맞춤형정보 등 정보제공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머지 5개 시도는 지역통계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통계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지 않다. 5개 시도는 인천, 충북, 충남, 전남, 제주이다. 이 중 인천, 충북, 충남, 전남의 4개 시도는 통계청 지방청 홈페이지⁴⁾를 통해 지역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내에 별도의 통계자료 탭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내 통계자료 탭을 운영하고 있다. 시도별 지역통계 홈페이지 현황은 <표 Ⅲ-1>과 같다.

12개 시도의 지역통계 포털사이트는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12개 시도의 지역통계 포털사이트들은 제공하는 정보의 양, 정보의 범위, 정보의 질 등에서 차이가 다소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통계포털(KOSIS)의 정보제공 방식을 따른다. 국가통계포털(KOSIS)은 국가승인통계 전체를 한 곳에 구축하여 국민들이 한 번의 접속으로 쉽고 편리하게 통계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자 중심의

3) 위키백과-포털 사이트,

https://ko.wikipedia.org/wiki/%ED%8F%AC%ED%84%B8_%EC%82%AC%EC%9D%B4%ED%8A%B8, 검색시간 : 2017.12.16.11, 12:00

4) 통계청 지방청은 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의 5개소

One-Stop 서비스로, 통계작성 기관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었던 통계자료를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접속만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게 한다.⁵⁾ 국가통계포털(KOSIS)의 정보제공방식을 따르면, 이용자는 주제별통계 아이콘을 통해 원하는 카테고리의 통계표를 찾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통계표 내 항목 간 조정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추출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은 단순히 정보제공 게시판을 통해 원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정보제공방식보다 이용자의 정보접근성을 월등히 향상시켜준다.

〈표 Ⅲ-1〉 시도별 지역통계 홈페이지 현황

구역	통계	홈페이지 주소	비고
서울	서울통계	http://stat.seoul.go.kr	—
부산	부산경제포털	http://www.becos.kr	—
대구	대구통계	http://stat.daegu.go.kr	—
인천	인천통계, 경인지방통계청	http://www.incheon.go.kr/articles/180 http://kostat.go.kr/office/giro	탭(인천광역시) 통계청 지방청
광주	광주시통계 정보시스템	https://gjciry.go.kr/stat	—
대전	대전의 통계	http://www.daejeon.go.kr/sta	—
울산	울산광역시통계	http://www.ulsan.go.kr/stat/index	—
세종	세종의 통계	http://www.sejong.go.kr/stat/do	—
경기	경기통계, 경기데이터드림	http://stat.gg.go.kr/statgg	—
강원	강원통계정보	http://stat.gwd.go.kr/	—
충북	충청지방통계청	http://kostat.go.kr/office/ccro	통계청 지방청
충남	충청지방통계청	http://kostat.go.kr/office/ccro	통계청 지방청
전북	전라북도 통계시스템	http://stat.jeonbuk.go.kr/	—
전남	호남지방통계청	http://kostat.go.kr/office/hnro	통계청 지방청
경북	경상북도 통계포털	http://www.gb.go.kr/open_content/stat	—
경남	경상남도 통계	http://stat.gyeongnam.go.kr/jsp/main	—
제주	통계정보	https://www.jeu.go.kr/open/governmen/stats/stats.htm	탭(제주특별자치도)

5) KOSIS FAQ, http://kosis.kr/civilComplaint/faqList.do?q_no=1#A_1, 검색시간: 2017.12.16.11:54.

IV.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의 필요성

1.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의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통계정보 탭을 통해 지역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정보는 <표Ⅳ-1>의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정보는 정보접근이 쉽지 않고, 정보이용도 불편한 편이다. <표Ⅳ-1>의 정보들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행정/통계정보-통계정보의 총 3개의 탭을 거쳐야 하므로, 정보접근이 수월하지 않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정보 메인 화면에는 11개의 탭이 존재하는데, 각 탭에서는 해당 주제의 자료를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주거나, 엑셀 또는 문서 파일을 게시판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제주를 제외하고, 통계청 지방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지자체를 포함한, 나머지 전체 지자체의 지역통계 홈페이지는 국가통계포털(KOSIS)식의 폴더형 자료 보관방식과 화면 내 조건부 자료 검색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정보는 정보이용도 불편하다고 할 수 있다.

<표Ⅳ-1>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정보 현황

구 분	수록기간	세 부 통 계 항 목	자료형태
인구통계 (월별)	2012.4월 ~2017.10월	• 총인구수, 주민등록인구, 세대수, 외국인 * 남·여 세부 구분 제공	인포그래픽, 엑셀파일
인구통계 (연별)	1991년 ~2016년	• 상주인구, 세대수, 한국인, 외국인 * 남·여 세부 구분 제공	엑셀파일
기본통계	2016년	• 인구 및 세대, 지방세, 공무원, 관광객, 의료, 교육, 상수도, 전력, 자동차, 주택, 도로, 사업체, GRDP, 감굴, 수산물	인포그래픽
발전통계	1946년 ~2016년 (비정기)	• 인구, 공무원수, 지역내총생산(도민), 재정규모, 관광객, 감굴생산, 발전설비, 자동차등록, 급수량(1인 1일), 주택보급	표

통계연보	1999년 ~2016년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농림·수산업, 광업·제조업 및 에너지, 전기·가스·수도, 유통·금융·보험 및 기타서비스, 주택·건설, 교통·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재정, 소득 및 지출, 공공행정 및 사법, 부록(주요 인사 명단)	엑셀파일
사회조사	2012년 ~2016년	-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및 체육,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등 13개 분야 * 분석결과만 제공(원자료 비공개)	pdf파일
사업체 조사	2002년 ~2016년	-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 연도별, 산업별, 조직형태별, 사업체 구분별, 행정시별, 읍·면·동별 - 사업체수 : 종사자 규모별, 대표자 연령대별, 산업별 대표자 성별 - 종사자수 : 성별, 산업별 여성, 종사상 지위별	hwp파일, 엑셀파일
경기종합 지수	2004.4월 ~2017.8월	- 동행종합지수 및 선행종합지수 동향 - 동행종합지수 보조지표의 도표 및 통계 : 비농가 취업자수, 광공업생산지수, 관광객수, 농산물소득(실질), 대형마트 판매액, 전력판매량 - 선행종합지수 개별지표 통계 : 건축허가면적, 소비자물가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광공업생산지수, 서귀포 지역평균기온, 신용카드 이용 상품 구매액(실질) * 부록에 통계 작성기관, 자료출처를 제공	hwp파일
지역내 총생산	2010년 ~2015년	- 지역내 총생산, 총 부가가치 및 요소소득 * 제주시, 서귀포시 구분	hwp파일, 엑셀파일
통계소식	비정기	- 전국 주요 통계 - 제주 관련 통계	hwp파일, 그 외 형식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정보공개-행정/통계정보-통계정보

(<https://www.jeu.go.kr/open/government/stats/population.htm>, 검색시간 : 2017.11.23, 20:00)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정보는 지역 내 정보 생산원과의 연결성이 부족한 편이다. 지역 경제와 관련된 자료는 제주연구원에서, 문화 관광에 대한 정보는 제주 관광공사에서, 교통과 관련된 정보는 제주교통정보 센터에서, 농산물 가격정보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산업체 정보는 제주테크노파크 산업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정보는 이 기관들의 자료를 일부 제공하지만, 이 기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연결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기능이 없다.

따라서 제주는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주통계 포털사이트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는 제주의 지역통계 포털사이트의 가칭이다. 지역통계를 제공하는 독립된 홈페이지를 갖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제주밖에 없으므로, 제주는 지역정보화 트렌드에 한걸음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2016~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5)의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 인터뷰 결과에서도, IT인프라 요구사항에서, ‘공공데이터 포털 : 서울형으로 고도화 필요’가 요구되었다.

제주통계 포털사이트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정보에 대한 비용편익 때문이다. 지역통계는 공공이 생산하는 정보재(information goods)이다. 공공은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정보재는 추가생산을 위한 한계비용(marginal cost)이 0에 가깝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지역통계는 무료로 지역주민 누구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지역통계 정보를 이용하는 도민 입장에서 고려되는 비용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뿐이다. 거래비용은 교환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하는데, 정보를 구하는 비용(cost)도 거래비용이 된다. 도민이 지역통계 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benefit)이 고정되어 있다면, 지역통계 정보가 주는 순이익(profit)은 거래비용이 적을수록 많아진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P = \bar{B} - C \quad (1)$$

P : 지역통계 이용 순이익, $\bar{B}$: 고정된 지역통계 이용 편익, C : 지역통계 이용 거래비용

쉽게 말해,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를 통해 지역통계 정보를 한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다면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게 되고, 이전에는 자료검색의 불편함으로 인해 포기되었던 정보까지 검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주 지역통계 이용의 사회적 순이익은 극대화 될 수 있다.

2. 제주통계 데이터센터의 필요성

제주통계 포털사이트 구축·운영을 위해 제주통계 데이터센터의 설립도 필요하다. 제주통계 데이터센터(가칭)는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의 전담 통계기관으로 제주 지역통계를 수집·관리하고, 지역 내 타기관의 통계자료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는다.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는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장기간 운영지속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 제주의 통계관리 인원은 <표 IV-2>를 참고하면, 3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나눌 경우, 기초지자체에는 통계전담 인력이 없다. 세종을 제외한 타지자체의 경우, 기초지자체에서 생산되는 통계자료를 광역지자체가 취합·관리·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통계 포털사이트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는 취약한 통계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라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

<표 IV-2> 지방자치단체별 인력 현황

(단위 : 명)

지역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362	50	20	13	11	11	11	9	47	22	15	29	22	27	35	34	3	3
광역지자체	101	21	6	5	3	3	6	6	7	6	5	4	7	5	7	4	3	3
교육청	25	9	1	1	1	1	1	2	2	1	1	-	2	1	1	-	1	-
기초지자체	261	29	14	8	8	8	5	3	40	16	10	25	15	22	28	30	-	-

자료 : 지방자치단체 통계조직 및 예산현황(지역통계지식포털, 2017.10.1.)

제주통계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지역 맞춤형 통계를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 맞춤형 통계란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연관되는 지역 특화통계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현재 수집되고 있지 않는 지역통계 자료를 뜻한다. 통계청은 2011년부터 시도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통

계 컨설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지역통계 컨설팅의 목적은, 지자체에서 중점 및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 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통계수요를 파악, 개발 및 정책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화통계 개발 확충을 통해 지역통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통계청, 2010). 부산광역시의 경우, 해양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맞춤형 통계를 개발하였고, 전북의 경우, 군산시의 고용 동향, 소재 기업들의 일자리 동향 및 구직자의 취업 관련 희망사항 등을 조사·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통계를 활용하였다.⁶⁾ 제주에서도 지역 특화통계 개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단일화 조직인 제주통계 데이터센터가 선(先)구축될 필요가 있다.

3.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 구축효과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정보는 단방향 정보제공으로 인해, 지역통계 자료의 생산과 활용을 활성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정보는 독립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지 않고,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도 쉽게 노출되어 있지 않아 통계 이용자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그리고 제주연구원, 제주관광공사, 제주교통정보센터, 농업기술원, 제주테크노파크 등의 타기관의 시스템으로 연계하지 않고 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자료를 업로드 하는 형태이므로, 통계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로 인해, 정보 검색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통계 이용자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검색하거나 추가적인 정보 검색을 포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정보 이용은 침체되고, 통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통계전담 조직이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역통계 전담조직에 의해 일률적인 단방향 통계자료가 제공되는 소통구조가 형성된다.

6) 지역통계지식포털 - 자료마당 - 우수사례, http://kostat.go.kr/inner/region/reg_01/1/index.static, 검색시간 : 2017.11.25. 21:15

<그림 IV-1>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데이터센터 구축효과

		구축 전(현재)	구축 후
플랫폼	온라인서비스 통계전담조직	제주도청 통계정보 제주도청 협치정책기획관	제주통계 포털사이트 제주통계 데이터센터
자료	지역기본 통계 타기관통계 연결 지역특화 통계	제공 오프라인 자료 수집 미제공	제공 온라인 시스템 연동 제공
이용 편의	검색시간 검색정보 만족도	많음 적음 낮음	적음 많음 높음
검색 여부	비용편익 이용결정	편익 < 비용 검색 포기	편익 > 비용 검색 활성화
맞춤형 정보	맞춤형정보수요 맞춤형정보생산	확인 안됨 생산 불가능	확인 가능 생산 가능
순환 구조	정보흐름 통계생산 통계활용	단방향 정보제공 추가생산 없음 활용도 낮음	양방향 정보소통 지속적 생산 활발한 이용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통계 생산·관리자와 통계 이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지속적인 통계생산과 활발한 통계활용이 가능하다.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는 독립된 홈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통계 이용자가 쉽게 통계검색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는 통계를 생산하는 타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연결권한을 받거나, 타 기관의 통계에 대한 관리권한을 획득함으로써, 제주통계 포털사이트 내에서 타기관의 통계를 검색 가능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통계 이용자는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로 쉽게 접속 가능하고, 한 곳에서 기본통계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통계를 검색 가능하게 되어, 정보검색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보이용의 편익이 비용을 압도하게 되고, 지역통계자료 이용이 활성화 된다. 이로 부터 통계 이용자가 주로 검색하는 통계자료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맞춤형 정보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제주통계 데이터 센터는 맞춤형 정보 수요로부터 지역특화 통계자료를 발굴 및 제공함으로써, 통계 이용자와 양방향의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양방향 소통은 선순환 구조가 되어 지속적인 지역통계의 생산과 활발한 통계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V.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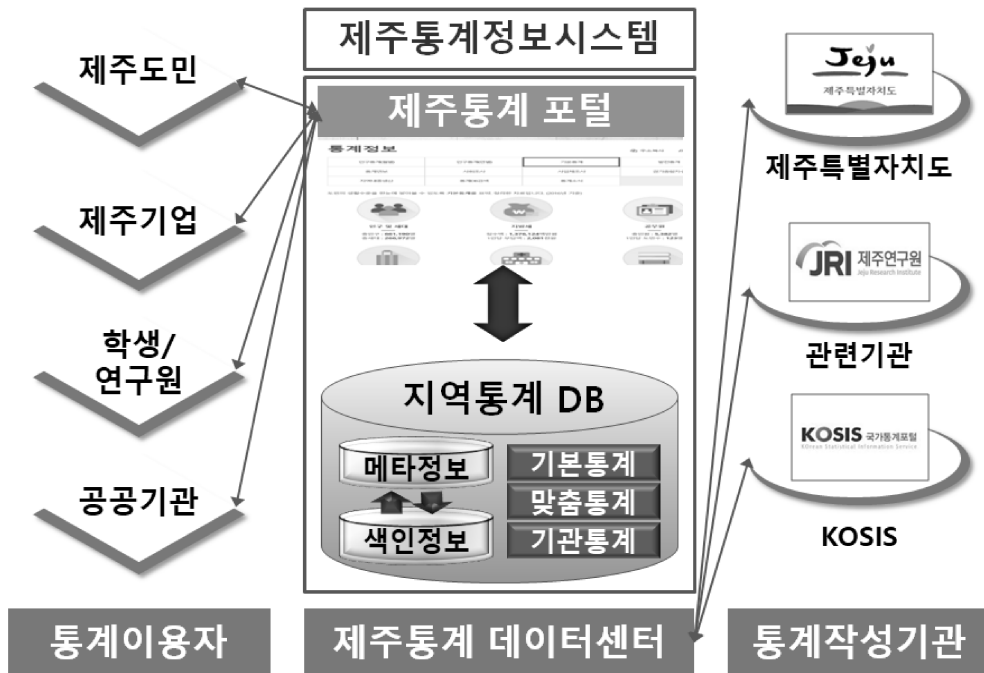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센터보다 선(先)구축 되어야 한다. 빅데이터 센터는 디지털화된 일부 자료만을 수집할 수 있고, 지역 정책수립, 지역 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지역통계 기본자료와 지역특화 맞춤형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 자료들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에 의해 수집·관리되고,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용자 편의의 One-stop 서비스로 제공됨으로써 지역통계의 활용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전에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지역통계의 근간을 튼튼하게 다져야 한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 제주만이 지역통계를 제공하는 독립된 홈페이지가 없고, 자료 제공방식도 타 지자체가 국가통계포털(KOSIS)식 폴더형, 검색형인 것과 비교하여, 구식의 게시판 다운로드형으로 한 걸음 뒤쳐져 있다. 따라서 지역통계 포털사이트를 선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은 ‘을축갑자(乙丑甲子)’와 같다.

1. 구축 방향

제주는 타지자체의 통계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대구는 통계의 현실반영도 및 정책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통계 작성절차를 체계화하고 정확한 기

초자료 입수를 위한 통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김태운 외, 2012).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초통계입력, 통계편제, 기초통계 DB공유, 모니터링 시스템, 매뉴얼 구축 등 5개 시스템의 개발에 중점을 두었고, 시스템 운영을 위해, 통계 편제인력의 보강 및 전문인력 양성, 조직 운영의 효율화, 웹 사이트 운영 및 관리, 통합DB관리 시스템에 중점을 두었다(김태운 외, 2012). 대구의 통계정보시스템은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의 통계정보시스템을 염두하고 구축한 시스템으로 제주가 벤치마킹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V-1>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



단, 타지자체의 통계정보시스템과의 차이점은 운영주체인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타지자체의 통계정보시스템은 지역통계 포털사이트와 지역통계 운영주체를 합친 개념이다. 지역통계 운영주체가 광역지자체 산하의 통계전담 부서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질적인 데이터센터라는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주는 다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주는 통계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제주통계 데이터센

터라는 별개의 조직을 신설하고, 지역통계자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주 통계 데이터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유관기관에 위탁 경영을 맡길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외형적으로 독립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센터라는 외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통계전담 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업무 전문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역통계를 생산·관리·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통계정보시스템은 이용측면에서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운영측면에서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로 이원화된 구조를 갖는다.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는 통계이용자들에게 지역기본통계, 지역맞춤통계, 지역내·외의 기관통계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통계수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는 제주통계정보시스템 구축단계에서, 기초통계정보 입력, 통계편제, DB공유 기능을 수행한다. 통계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산하 행정기관의 부서별로 입력되는 통계를 통계정보시스템 내에서 입력하도록 편제하는 것이고, DB공유는 지역 내 유관기관의 통계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는 제주통계정보시스템 운영단계에서, 제주통계 포털 사이트 운영 및 관리, 통계전담인력 양성, 통합DB관리, 맞춤형 지역특화 통계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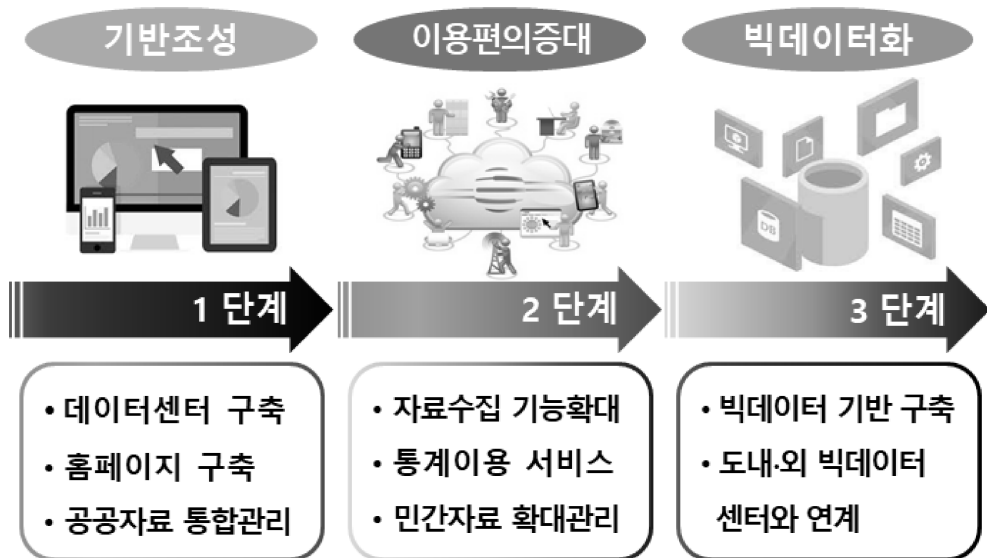
2. 구축 방안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는, 구축 로드맵에 따라 3단계에 걸쳐 구축·확장된다. 1단계는 기반조성 단계로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공공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이 자료들을 제공할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를 운영한다. 2단계는 이용편의 증대 단계로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는 통계자료의 자체수집 및 민간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는 통계이용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3단계는 빅데이터화 단계로,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도내·외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한다.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는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한다.

1단계 제주통계 기반조성의 목표는 지역통계에 대한 정보접근성 향상이다. 1단계에서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제주도민의 지역통계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제주도민이 제주도내 공공기관 자료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도록 한다.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데이터센터는 지역통계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된다. 1단계의 중점사항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들을 한 곳으로 취합하여 통합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이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이고, 전담 통계조직이 제주통계 데이터센터이다.

<그림 V-2>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 구축 로드맵



2단계 제주통계 이용편의의 목표는 지역통계에 대한 이용편의성 향상이다. 2단계에서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는 제주통계 콜센터와 제주통계 드리미를 운영한다. 제주통계 콜센터는 제주통계 자료검색, 자료요청 문의에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제주통계 드리미는 자료분석 문의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는 제주도민의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자료 발굴과 수집기능을 수행하고, 제주도내 민간기업의 자료를 통합 관리한다. 2단계의 중점사항은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데이터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콜 업무와 통계분석 업무를 전담할 부서와 자료수집 업무를 전담할 사회조사 부서를 제주통계 데이터센터 내에 추가로 편성한다.

3단계 제주통계 빅데이터화의 목표는 지역통계의 빅데이터 편입이다. 3단계에서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는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한다.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도내·외 타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한다. 3단계의 중점사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지역통계를 빅데이터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가공·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장비와 인력 등의 기반을 확충한다.

각 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1단계에서는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통계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권한도 부여받아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 2017.9.15.)의 제 16조 지역정보화 추진⁷⁾과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제정 2017.6.2.)의 제 11조 빅데이터활용기반 구축⁸⁾에서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데이터센터의 설립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의 통계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한 권한부여가 필요하다. 2단계에서는 제주통계 콜센터와 제주통계 드림 운영을 위한 추가 재원마련이 필요하고, 민간자료에 대한 통합관리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3단계에서는 빅데이터센터 구축에 준하는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초통계에서 빅데이터로의 지역통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각 단계의 목표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제주통계를 활용한 부대행사가 필요하다. 1단계에서는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한 제주통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제주통계 분석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주통계 학술대회는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상금과 기관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주통계 분석보고서는 월간으로 정기 발행하고, 주요 제주통계에 대한 도민의 분석요구를 수렴한 포커스형 분석리포트를 분기별로 정기 발행한다. 2단계에서는 제주통계 활용 창업 우수사례를 포상한다. 이는 제주통계 학술대회를 확장한 것으로 민간의 제주통계 이용 우수사례를 포상하여 제주통계를 홍보하고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을 갖는다. 이 외에도 제주통계 포럼, 찾아

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시간 : 2017.11.25. 20:35

8)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검색시간 : 2017.11.25. 20:40

가는 제주통계 교실 등의 부대 행사를 개최한다. 3단계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제주도 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VI.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관해 고찰하였다.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독립된 홈페이지가 없는 유일한 시도이고, 통계전담인력이 3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따라서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문에서는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3단계 구축전략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기반조성 단계로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구축하여 공공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이 자료들을 제공할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2단계는 이용편의 증대 단계로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는 통계자료의 자체수집 및 민간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는 통계이용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3단계는 빅데이터화 단계로,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는 실시간으로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하는 것이다.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구축을 통해 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를 통해 도민의 정보 접근성과 정보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째, 제주통계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주통계의 활용범위를 넓힘으로써, 행정, 산업, 연구,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통해 공공기관별 통계자료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항목별로 체계화·세분화된 제주 전문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통해 민간의 통계자료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산업간·기업간 정보 연계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의 질 향상시킬 수 있다. 다섯째, 제주통계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주도민의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자료를 발굴·수집함으로써,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하고, 통계활용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여섯째, 제주통계 데이터센터의 기능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확

대함으로써, 지역 비즈니스 모델에 활용 가능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하고, 도내·외 타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센터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담당자와 지역전문가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제주형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행·재정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제주에 필요한 것은 빅데이터 센터가 아닌,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데이터센터이다. 빅데이터 센터는 디지털화된 일부 자료만을 수집할 수 있고, 지역 정책수립, 지역발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지역통계 기본자료와 지역특화 맞춤형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역통계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행·재정적 낭비가 될 수 있다. 희소자원은 언제나 적재적소에 쓰이는 것이 최선이다. 빅데이터 센터 도입을 조금 뒤의 미래로 연기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제주통계 포털사이트와 제주통계 데이터 센터를 선구축하는 것이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적 선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역통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진 후, 빅데이터 센터를 도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빠른 방법이자,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보자.

[참고문헌]

- 강창민, 정원희(2014),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3.0 대응방안”, 『제주발전연구』 제18호, 제주발전연구원, pp.125-144.
- 김영표(2007), 『지역통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경남: 경남발전연구원
- 김태윤, 박철용, 하정철(2012), 『대구시 지역통계정보센터 구축방안』,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 미래창조과학부(2013),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 경기: 미래창조과학부
- 이지영(2015), 『빅데이터의 국가통계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 세종: 통계개발원
- 윤태범(1998), “우리나라 지역통계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통계분석연구』, 제3권 제1호, 통계청, pp.105-130.
- 정남지(2015), 『통계로 본 인천: 삶의 질 지표변화(2000-2014)』,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제주연구원(미간행) 『2017년 11월 제주통계』, 2017.11.30.
- 제주특별자치도(2016), 『2016~202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 통계교육원(2011), 『국가통계의 이해』, 세종: 통계교육원
- 통계청(2017), 『2017년 3분기 가축동향』, 세종: 통계청
- 통계청(미간행), 『지역통계 컨설팅 운영계획(안)』, 2010.10월
- 통계청(미간행), 『제주 지역통계 컨설팅 결과보고서』, 2012.6월
- 통계청(미간행), 『지방자치단체 통계조직 및 예산현황』, 2016.10.01.
- 한국은행 제주본부(2016), 『2015년 제주경제브리프』, 제주: 한국은행 제주본부

